

| 겨레의 창 |

《겨레말큰사전》과 시대정신

- 김하수 / 겨레말큰사전 이사

1. 국어사전과 시대정신

사전은 그냥 우연히 출간되는 것이 아니다. 편찬자의 목적의식이 있게 마련이고 당시 사회가 원하는 시대적 요구를 배경으로 하고 나오게 마련이다. 근대 이후 출간되었던 국어사전은 당시의 시대상을 늘 반영하고 있었다.

우리의 초창기 사전은 외국인이 만든 단어장 수준의 사전이었다. 그 이후 한국어 사전의 작업은 초창기 선구자들의 손으로 넘어온다. 조선광문회에서 착수했던 ‘말모이’는 미완으로 끝났고, 해방 이후 조선어학회의 ‘큰사전’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장 기초적인 어휘 사업이 성취되었다. 또 동시에 이 시점에서 우국지사들의 손을 발리던 국어사전 편찬의 시대는 막을 내린다.

다음 단계는 ‘상품으로서의 사전’의 시대에 접어든다. 1958년의 신기철, 신용철 형제의 ‘표준국어사전’, 홍운선, 김민수의 ‘새사전’, 이희승의 ‘국어대사전’ 등은 상업성이 강해지고 제본 수준도 높아지고 활자도 개량되었다. 그러나 상업 출판의 요구 때문에 어휘를 무리하게 늘려 의심스러운 단어들도 많이 올림말이 되었다. 그러다가 ‘프레지던트, 파더, 마더’와 같은 말까지 들어갔다. 또 효용이 의문스러운 고유명사와 외래어도 대량으로 올린 잘못된 관행을 만들었다.

1990년대 이후에 출간된 연세대와 고려대의 사전은 학술활동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편찬지침 역시 언어학적 개념과 어휘 빈도 개념을 적용했다. 이론적으로는 충만한 가치가 있었지만 ‘시장성’을 충분히 갖출지 못한 것, 그리고 국가에 의해 편찬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세에 밀려 사실상 출판과 동시에 절판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과적으로 20세기 마지막 부분과 21세기 초에 국가가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전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면서 동시에 독점도 한 셈이다. 한편으로는 국가 책임으로 사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대로 민간 주도의 사전이 그 이후 소멸되다시피 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앞으로의 사전도 역시 국가 기관이 책임지고 사후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부담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남과 북의 협력 사업이 점점 활성화될 경우 당분간은 국가의 역할이 지금보다 커지면 커졌지 그리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겨레말큰사전》의 경우는 해외 동포들의 언어 문제에도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민간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동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민간 부문의 인적 자원과 정보 통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국어사전들은 근대화 이후 그 주도 세력이 변화해 왔다. 다시 말하면 사전은 사전 편찬자와 사용자 사이의 독립적 변수가 아니라 그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일종의 시대정신과 연동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기에서는 우국지사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사회 안정기에는 상업화를 통해 사전의 수준과 정보의 질을 높이고 사용자에게 대한 서비스를 강화했으며, 도약하는 단계에서는 학술적인 내용을 채워 넣었고, 사전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다음에는 국가 예산의 힘으로 관리되는 모습으로 변모해 온 것이다. 각 시대를 지배해 온 시대정신에 어떻게 응답했는가의 문제였다.

2. 현 시대의 흐름과 의미

그렇다면 《겨레말큰사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대적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정치사회적 통합과 재통합 과정에 중대한 이정표이기도 하다. 난마처럼 얽혀 있는 한반도 문제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유럽에서 시작한 인류의 근대화 노력은 북미 대륙까지 번지고 나서 제국주의화되면서 계몽적 동력을 잃어버렸다. 다른 세력인 슬라브 문화권은 대안적인 이념으로 북유라시아와 동유럽으로 뻗어나가다가 또 자기 한계에 봉착해버렸다.

또 다른 줄기라고 볼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순탄한 근대화에 성공하고 중국과 한국은 좌초된 상태를 찍 오래 버텨야 했다. 한반도가 통일을 통해 미완의 근대화 과제를 충족한다면 동아시아는 근대화 과정을 진정 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의 동아시아의 ‘생산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밀리지 않지만 그 위에 쌓아 올릴 문화적인 성취는 늘 불안정했다. 우리의 통일은 두 권력을 하나로 만드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해내야 한다. 곧 체제와 문화의 통합이라는 언급을 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 판세의 변화는 또 새로운 시대의 서곡을 알려 주고 있다. 곧 ‘세계화’와 ‘다극화’ 문제이다.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바로 이 두 가지 시대정신의 반영이기도 하며, 우리 남과 북의 변화도 이에 상당 부분 연동되어 있다.

이제 막 21세기 초반에 들어선 지금 세계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모든 국가의 거버넌스가 위기를 겪고 있다. 그나마 안정적이던 독일의 메르켈도 퇴장을 예고했다. 세계 경제를 지탱해 주던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다. 유럽 연합은 영국의 이탈 이후 자신의 문제 외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일본의 태도 역시 이기적으로 흐르고 있다. 미국의 금융 위기 이후 모든 세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이다.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 역시 모두 부담스러워한다. 가치와 윤리의 정당성이 위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좀 더 노력해야겠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행보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자유스러워질 것이고 정치적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미국은 결국에 가서는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의 근간을 존중해 주는 조건으로 다극화를 용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반적인 안보를 미국이 조정하되 경제적인 통제와 조율은 유럽연합, 동아시아 등이 한 몫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남북 협력 체제는 동아시아의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한몫을 요구 받기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대국이 되려는 야심보다는 문화적 허브의 길을 걷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우리의 앞에 놓인 시대정신은 평화적인 세계화의 도정이다. 또 그 일환으로서의 동아시아적 발전과 협력이다. 과거에 일본이 군국주의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과오를 수정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정보 기술, 연예, 영화, 스포츠 등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문화나 중국의 문화는 패권적 성격을 많이 띠었다. 일본은 차분하고 정밀한 기술 기반 사회로서 교육과 학문이 발전한 좋은 토양의 사회이지만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미일 안보체제에 묶여 있음으로써 자신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주위 국가와 갈등에 쉽게 빠진다. 반면에 한국(남북)의 문화는 남을 지배해 본적이 없는 문화이다. 식민지 출신으로서 독립하여 거의 유일하게 경제적, 기술적 자립에 도달했거나 핵무기를 스스로 개발해 본 일이 있는 사회이다. 북한은 구사회주의 체제에서 코메콘에도 정식 가입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기도 했다.

3. 《겨레말큰사전》 이후의 《편찬사업회》

남과 북이 이제 자신을 목죄던 국제적 압박에서 좀 느슨해지면 함께 문화 분야에서, 특히 언어 정책과 사업 부문에서 공유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우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언어 규범의 통일일겠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미 양측에서 유효하게 가동 중인 언어 규범을 자유롭게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출판물이나 인터넷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서서히 《겨레말큰사전》에서 성취한 일부 합의한 언어 규범을 조심스럽게 시행하는 것이 좋다.

자연스럽게 사전 자체도 다양한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문용어사전, 외래어 사전, 한자어 사전, 사자성어 사전, 의미 분류 사전, 그림 사전, 어원 사전, 표기 변천 사전, 중세어 사전, 미두 사전, 지도를 곁들인 지명 사전 등등 매우 다양한 사전의 개발로 국민들에게 풍부한 언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주요 외국어 문헌 번역을 남과 북이 공유하거나 함께 번역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번역한 ‘조선 실록’을 더 수준 높여 재번역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단계에 이르르면 아주 중요한 사업이 기다릴 것이다. (가칭) ‘언어자원관리본부’ 같은 기관이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 사회에서 사용하는 방언, 신어, 고전 문헌어, 일상어, 번역어 등을 조사해 상시적으로 어휘 목록과 사전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 기구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리된 전문 용어도 이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 ‘티브이’와 ‘텔레비전’이라는 변이형 가운데 어느 것이 빈도가 높은지, 혹은 지역 차이나 계층 차이는 없는지 하는 조사를 해서 출판계나 언론계, 사회통신망에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바라다’의 명사형을 ‘바람’으로 쓰려는 세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도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칭 ‘국어관측소’가 필요하다.

이상의 사업은 사실 ‘국어원’의 업무와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러나 충분히 타협과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어원’은 국가적인 공식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겨레말큰사전》은 그와 달리 민간부문의 협조도 좀 더 쉬울 것 같다. 따라서 좀 거시적인 기획과 정책적 내용은 국어원이 다루고 언어자원에 관계된 자산들은 《겨레말큰사전》이 다루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그래서 ‘국어원’은 정부를 대변하고 사업을 인증하고 공식성을 비준하는 역할을 하는 데 치중하고 《겨레말큰사전》은 현장을 뛰어다니는 역할과 함께 국가 부문과 민간 부문을 엮어 주고, 국가가 팔을 뻗기 조심스러운 해외 동포 사회와의 연결망 강화 등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통일 후에도 민간 부문의 협력과 참여를 북돋는 기능을 《겨레말큰사전》과 그의 후속 수정판들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불행했던 분열의 역사를 위대한 재통합의 역사로 재탄생하게 하는 역할의 한 모퉁이를 《겨레말큰사전》이 맡아 주었으면 한다. 



1 김하수

연세대 국어문학과 졸업, 독일 루트대학교 어문학부 박사, 1986~2014년 연세대 교수로 재직, 2008~2013년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국립국어원 언어정책부장, 한국사회언어학회 회장, 한국사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겨레말큰사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우리말 보물찾기 |

도담도담

- 강순예 / 동시작가

밤새 내린 눈,
소복소복 쌓인 아침.

“춥다, **고블**들라.”
할머니 걱정하지만

“겨울이 다 그렇지,
그러면서 **도담도담** 자라는 게야.”
할아버지 말씀에 어깨를 짝 펴요.

덴바람 **높바람** 쟁쟁 분대도
저프다 **터럭만큼**도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 할래요
포대 자루 깔고
미끄럼도 탈거예요.

“야, 볼 빨간 애, 놀자!”
박요, 친구들이 밖에서 부르는 걸요.



동시 속 우리말

고블: ‘감기’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도담도담: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
덴바람: 뱀사람들의 말로, ‘북풍’을 이르는 말. [같은 말] 뉘바람.
높바람: 매섭게 부는 바람.
저프다: ‘두렵다’의 옛말.
터럭만큼: 아주 작거나 사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시 풀이

‘저프다’는 ‘두렵다’의 옛말이다. 터럭은 ‘사람이나 길짐승의 몸에 난 길고 굵은 털’을 말하기도 하며 ‘아주 작거나 사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로 쓴다. 아무리 큰 추위가 닥쳐도 두렵지 않은 아이들, 밤새 내린 눈이 온 누리를 덮은 날, 아이들 놀이마당이 펼쳐지는 날이다. 아이들에게 추위쯤은 두렵지 않다. 소복이 쌓인 눈을 굴러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고, 마음껏 뒹굴고, 미끄럼도 타며, 합박꽃처럼 웃는 아이들 모습을 하얀 도화지속 그림처럼 담고 싶었다. 덴바람 높바람 쟁쟁 불어도 도담도담 잘 자라는 우리 아이들 모습이 길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

선달그믐 밤

“오늘밤에 온단다, 신 없는 아이.
고살마다 집집마다 들어가
이 신발 저 신발 죄다 신어보곤
맞갓은 걸 골라, **하무뭇** **해낙낙**
홀딱 신고 가버리는…….”

할머니 말씀에
동생 눈 내 눈 풍그래진다.
“정, 정말요?”

“이렇게 문 앞에 체를 걸어두면
수 세기 좋아하는 그 아이,
요 **썸썸한** 구멍을 세다가, 세다가, 세다…,
동살이 잡힐 무렵 ‘아이코, 내 신발!’ 하며 돌아간단다.”

“밤 오면 또다시 안 오나요?”
“안 오긴, **이듬해**에 또 오지!”

깊은 밤 문 앞에 살며시
내다 놓았다.

“작아서 안 신는 신발이야. 맘에 들면 가져가렴.”



동시 속 우리말

선달그믐: 음력으로 한해의 마지막 날.
고살: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
맞갓다: 마음이나 입맛에 꼭 맞다.
하무뭇: ‘매우 하무뭇하다(마음에 흡족하여 만족스럽다)’의 뿌리 말(어근).
해낙낙: ‘해낙낙하다(마음이 흐뭇하여 만족한 느낌이 있다)’의 뿌리(어근).
썸썸하다: 간격이 매우 좁거나 작다.
동살이 잡히다: 동이 터서 흰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다.
이듬해: 바로 다음의 해.

동시 풀이

‘선달그믐’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해마다 선달그믐 밤이면 하늘에서 내려와, 잠을 자는 아이들의 신을 신어 보고 제 발에 꼭 맞는 것을 가져간다는 귀신이 있다. 바로 ‘야광귀’라고 부르는 신발귀신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세시풍속을 담은 이 시에는 할머니 옛이야기에 귀를 쫓긋하는 아이들 모습을 담았다. 이 시에서 신발귀신이 제 발에 꼭 맞는 신을 찾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하무뭇’과 ‘해낙낙’을 썼다. 신발귀신이 하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은 동이 뜨기 전, 체 구멍 하나하나를 세고 또 세다가, 결국 다음해에 또다시 신을 찾으러 온다는, 신발귀신, 신을 뺏기지 않으려면, 신발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안방에 숨겨두거나, 밤을 하얗게 새워야 한다.

잠은 안 오고

창밖에 애기별꽃 **소록소록**
별이 내려요, 꽃이 내려요.

아침이 오면
알록달록 색동옷 입고
타래버선 북주머니
곱게 딸은 **귀밑머리**에
배찌명기 도투락명기 드리고
연니랑 오빠랑 세배 가요.
숫눈길 사박사박 함께 가요.

오늘은 **까치설날**
잠은 안 오고
머리말 설빔도
잠은 안 오고



동시 속 우리말

소록소록: 비나 눈 따위가 보슬보슬 내리는 모양.
귀밑머리: 이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 귀 뒤로 넘겨 딸은 머리.
숫눈길: 눈이 와서 쌓인 뒤에 아직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박사박: 모래나 눈을 잇따라 가볍게 밟는 소리, 또는 그 모양.
까치설날: 어린아이의 말로, 설날의 전날 곧 선달 그믐날을 이르는 말.
머리말: 누웠을 때의 머리 부근.
설빔: 설을 맞이하여 새로 장만하여 입거나 신는 옷, 신발 따위를 이르는 말.

동시 풀이

창밖에 애기별꽃 같은 눈이 별처럼 꽃처럼 내리고, 이 밤이 지나면 설날이다. 이 시는 설빔을 입고 온 마음에 설날 아침이 빨리 오길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 모습을 담았다. 새해 첫날을 맞는 밝고 맑은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눈길을 뜻하는 ‘숫눈길’을, 다정하게 속삭이듯 가볍게 걷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사박사박’을 썼다. 새해 첫 명절인 설날, 가지런히 놓는 머리말 설빔, 타래버선과 꽃신을 신고 또 신어 보았을 아이, 예쁜 배찌명기는 얼마나 만지작거렸을까, 머리 위 배찌명기와 머리끝에 곱게 드릴 도투락명기도 한껏 나폴대며 뽐낼 나들이 설렘으로 오늘밤 잠이 안 온다.

타래버선, 배찌명기, 도투락명기

타래버선은 양 볼에 수를 놓고 코에 색실로 술을 단, 돌 전후의 어린이가 신는 누비버선의 하나이며, **배찌(뱀찌)명기**는 배의 찌 모양으로 만들어 여자아이의 머리 위를 장식하는 머리 꾸미개, **도투락명기**는 머리 끝에 드리는 자중빌 명기이다. 예전에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타래버선을 신고 배찌명기를 드렸으나, 그 모양이 예뻐 지금은 어른들 한복차림에도 많이 쓰인다.



| 강순예 |

동시작가 | 국어문장사 | 문화산업학 석사 | 머리랑포크 팀 ‘해사현’으로 활동, 2018 우리말 지킴이 선정, 국립국어원 <실표 마칩표>에 ‘우리말 동시’를 연재했으며, 토박이 우리말글, 우리문화를 시와 노래로 담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 남녘말 북녘말 |

남과 북의 정보통신 용어 차이

- 서소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통상·남북협력센터 연구원

“막대폰을 사용하다 재작년에 터치폰으로 바꿨고 게임은 주로 봉사시장에서 새로 받습니다.” 올해 북한 이동통신에 관한 새터민 인터뷰에서 들은 답변이다. 답변을 들은 순간 각 단어의 의미를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막대폰’은 ‘폴더폰’을, ‘터치폰’은 ‘스마트폰’을, 그리고 ‘봉사시장’은 ‘앱스토어(AppStore)’을 의미한다. 북한도 최근 북한의 정보통신 용어는 해외도서 및 콘텐츠의 유입으로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이동통신 관련 용어들을 이해할 수 없다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학술용어들은 또 얼마나 다를까?

남북의 정보통신 용어는 일반어의 경우 ISO국제 표준어를 사용하여 상호 소통이 가능하나 전문어의 경우 남측은 일본식 한자 표기법, 북측은 러시아 발음 표기법으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정보통신 용어가 남측과 상이한 것은 북한의 기술발전과정과 언어정책이 다르며 남측 간 용어 사용이 다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상호 간 기술 공여국이 다른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분단 이후 북측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어식 전문용어의 형태로 변화되었고 남측은 영어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정보통신 용어에서 러시아 발음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일례로 케이블(cable)을 ‘까벨’ 또는 ‘까벨’, 벡터(vector)를 ‘벡토르’로 표기한다. 또한 ‘구동기’, ‘인터넷’ 등 일본식 한자어와 영어 표기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북측의 정보통신 발전 초기 수많은 도서들이 일본으로부터 반입되었기 때문이다(통일교육원, 2009). 북한은 조선말 순화 정책의 영향을 받아 고유어 표기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립국어원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남측의 정보통신분야 전문용어 50,008개 중 순우리말은 0.2%, 한자어 37%, 외래어 19%, 혼종어는 42%를 차지하여 남북 정보통신분야 용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남북의 용어차이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첫째, 두음법칙의 적용 차이를 보인다. 북측은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결(link)’를 ‘련결’, ‘논리(logic)’를 ‘론티’로 ‘e’로 시작하는 글자도 단어의 맨 앞에 올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접해 온 북측의 일반 언어와 차이가 다르지 않다.

둘째,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할 때의 차이이다. 앞서 기술 유입의 경로가 남측은 미국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측은 러시아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케이블(cable)’을 ‘까벨’ 또는 ‘케벨’, ‘벡터(vector)’를 ‘벡토르’ 등으로 표기한다. 일부, 일본식 발음 표기 형식도 나타난다. ‘맵(Map)’를 ‘마프’ 또는 ‘매프’로, ‘래스터’, ‘주사(raster)’를 ‘라스타’로 표기한다.

셋째, 우리말 순화 과정에서 나온 낯선 의미의 단어들이다. 예를 들어, ‘버스(bus)’를 ‘모션’, ‘텍스처(texture)’를 ‘컬무늬’ 등으로, 그 용어만으로는 전문적인 뜻을 온전히 유추하기 힘들다. 남측의 ICT 전문용어 순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 예를 들어, ‘누리꾼(netizen)’과 같은 용어는 그 의미를 잘 순화시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비 되는 북측의 용어는 ‘망시민(netizen)’이다. 두 용어 모두 의미를 유추를 할 수 있으나, 활용 빈번도가 용어의 활용도 측면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북측이 남측보다 우리말을 더 많이 발전시켜왔다고는 하나, 전문용어에 있어서는 한자로 이루어진 것이 많이 존재한다. 앞선 예인 ‘모션’ 역시 한자어로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흔히 쓰이는 ‘명령(command)’도 ‘지령’으로 북측의 문화적 특성이 한자어의 전문용어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남북 모두 공통의 한자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분단된 동안 한자어의 사용 역시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올해 남북 ICT 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며 통일부 남북한 IT용어, 남북 과학기술 용어집 등 연구기관, 민간에서 작업되어진 남북 정보통신 분야 용어 사전에 수록된 단어와 북한의 ‘정보과학’, ‘과학원 통보’에 수록된 약 7,000여 개 단어를 대상으로 용어 비교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형태적 일치도를 기준으로 AA, Aa, AB 세 가지 형태로 분류했다. AA형태는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가 일치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는 것이고 Aa형태는 남측의 서로 다른 어문 규정으로 인한 표기 차이만 가지며 사실상 동일성이 확인되는 것 그리고 AB형태는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가 각기 달라서 미질성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AB형태가 전체 샘플의 72%로 남북 정보통신 용어의 대부분이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AB형태로 분류된 샘플을 재분석한 결과 동일한 단어를 표기하는 방식 즉, 동일한 단어를 남측이 각각 러시아어, 영어, 한자어 등의 외래어로 재표기하기 때문에 용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남북 정보통신 용어 연구, 사전 발간작업은 북한 정보통신산업의 변화가 두드러진 2012년 이후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일부 연구기관을 통해 명맥만 유지가 되었다. 과거 평양에 LCD 모니터 공장 설립을 추진한 대북사업자에 의하면 북측 근로자와의 협업 과정에서 남측의 전문용어를 이해시키는데 약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남과 북의 정보통신 교류 형식이 현재 산림, 철도분야와 같이 전문가 간 교류로부터 시작된다고 가정했을 때 협력 사업 활성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북한의 정보통신 정책과 산업의 이해에 기여하는 남북 정보통신 용어 비교 연구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출간되는 《겨레말큰사전》에 이어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용어가 담긴 《겨레말큰사전》이 편찬되어 남과 북의 교류 협력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서소영 |

고려대학교 경영학전공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2013년부터 남북 ICT, 방송분야의 교류협력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과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탁으로 남북 IT용어집을 편찬한 바 있다.

[남녘말 북녘말 북한의 국어 교과서 속 낱선 어휘 보기 >](#)

| 남녘말 북녘말 |

북한의 국어 교과서 속 낱선 어휘

- 강보선 /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북한의 국어 교과서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종종 보인다. 이러한 단어들은 국어 교과서에 실렸다는 점에서 좀 더 눈여겨 볼 만한 가치가 있다. 2013년에 발간된 북한의 초급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예로 들어 우리에게 낯선 단어들을 교과서 예문 및 사전 뜻풀이와 함께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다의어인 경우에는 예문에서 사용된 뜻만 제시함).

단어	교과서 예문	조선말대사전(2017년 판) 뜻풀이
거뿔거뿔하다	등근해가 떠오르자 수평선위에 흰 거뿔 거뿔한 물체들이 나타나	(색깔이) 군데군데 검은듯 하다.
고르롭다	온 대지에 고르롭게 내려와 쌓이는 함박눈인데	한결같이 고른 느낌이 있다.
공열	그러자 배속에서는 바가지만 한 공열이 튀어나왔습니다.	공의 열 또는 공의 열주머니를 그대로 말린 것.
굽실굽실	봉우리는 머루, 다래덩굴로 굽실굽실 장식 하구요.	머리칼이나 실 같은것이 구불구불 좀 크게 말려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겉다	그 아이는 헛기침을 크게 두번 겉었다.	기침을하다.
적두룩하다	물고기를 가득 걸머진 키가 적두룩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키가 멋없이 크다.
광포쟁이	못 잡으면 광포쟁이가 더거든.	<허풍이 많거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놀리게 이르는 말.
대곤하다	영팔이가 의견을 내놓자 기우는 눈이 대곤해지며 고개를 저었다.	(주의해보거나 놀랐을때) 눈이 휘둥그렇다.
뒤더수기	뒤더수기에 손을 올리는 영팔이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다가	<뒤달미>를 이르는 말.
들렁들렁	«땡을 만들라» 하면 땡이 저 부속품처럼 들렁들렁 떨어지겠구나?	목직한 물건이 바닥에 잇달아 똑똑 떨어지는것과 같은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뜨적뜨적	원숭이의 물음에 악어가 흐느끼듯 뜨적 뜨적 대답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매우 느리고 더딘 모양을 나타내는 말.
마사지다	그것은 다 마사진 배였습니다.	부서지거나 깨져서 못쓰게 되다.
뺏다곤지다	다리통이 실한아이가 더 큰 애를 배지기로 허양 뺏다곤지자	힘껏 메여곤지다.
바지괴춤	들러입은 바지괴춤을 두손으로 붙들고 땀을 빼는 일남이가	조선비이나 고의를 입고 허리를 접어 여민 부분 또는 그 사이.
바지흔슬	영팔이는 바지흔슬만 애꿎게 매만지며 우물쭈물하였다.	바지가랑이의 앞뒤쪽을 호야박은 슬기.
불똥치	사람들이 불똥치를 해들고 달려갔을 때	불이 막 타는 봉치.
싱겁등미	영팔이는 별 싱겁등미를 다 본다는듯	«싱거운것이나 싱거운 소리를 잘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뻥하다	기우는 뻥한 물안경을 척 꺼내들었다.	(생긴 모양이나 보임새가) 아주 멋있다.
아영각	소나무숲사이로 들여다보이는 아영각을 발견한 영팔이는	아영생들이 들어서 생활할수 있게 꾸러놓은 집.
연필방아	이렇게 써놓고는 연필방아만 짚었는데 지금은 쓰고싶은	«어떻게 썼으면 좋는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 자꾸 연필끝을 바닥에 대었다 떼었다 하는것»을 방아질에 비겨 이르는 말.
와들와들	길손들은 와들와들 놀라 일어나며 입을 딱딱 벌렸습니다.	잇달아 갑자기 마구 소스라쳐 놀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집어들다	범이 집어들때도 줄어지지 말고 힘껏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남에게 다루거나 겨루기 위해서 대들거나 달라붙다.
조동	군관인 아버지가 오늘 조동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조직적조치나 행정적조치로 직장을 옮기는 것.
주렁지다	남수는 온갖 과일이 주렁진 신기한 과일 나무를	주렁주렁 달리다.
주땃하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죄다 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주땃해지고 말았다.	무엇인가 하려다가 문득 망설이며 머뭇거리다.
행행하다	일남이는 행행한 목소리로 씩씩하게 대답을 올리였다.	되달지고 왔다.
허양	다리통이 실한아이가 더 큰 애를 배지기로 허양 뺏다곤지자	거침없이 그냥.

위의 단어들은 대부분 표준국어대사전에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적두룩하다, 마사지다, 바지괴춤, 행행하다’는 아직 미등재어로 남아 있다. ‘공열(웅담), 광포쟁이(허풍쟁이), 뒤더수기(뒤달미)와 같이 북한어에 해당하는 남한어(할호 속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마땅한 대응어를 찾기 어려운 단어들도 있다. 위의 단어들이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남한어와 정밀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 강보선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현재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공저로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 「문법 교육의 이론과 응용 1」, 「어휘 교육론」 등이 있다.

[남녘말 북녘말 남과 북의 정보통신 용어 차이 보기 >](#)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늑대와 승냥이

- 이윤경 / 겨레말큰사전 연구원

‘늑대’와 ‘승냥이’는 모두 갯과(科)의 포유류에 속한 종(種)이다. 포유류 가운데 주로 육식을 하는 짐승을 식육목(食肉目)이라고 한다. 식육목은 대개 이가 날카롭고 발톱과 송곳니가 발달하였으며 성질이 사납다는 것이 특징이다. 식육목 가운데 한 과인 갯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고 폭넓은 적응력을 지녔으며 일반적으로 주둥이가 길고 후각이 예민하다. 우리나라에는 여우, 너구리, 늑대 등의 종이 퍼져 있다.



‘늑대’는 개와 비슷하나 머리가 가늘고 꼬리를 위쪽으로 향하여 구부리지 않고 항상 늘어뜨리는 점이 차이가 있다. 늑대는 보통은 가족 단위로 생활하지만 겨울에는 여러 가족이 모여 큰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¹⁾

‘승냥이’는 늑대와 비슷하나 몸집이 조금 작으며 주둥이와 다리가 짧고 꼬리가 아래로 늘어져 있다. 다른 갯과의 동물과는 달리 아래쪽의 잇몸에 난 어금니 한 쌍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바위산이나 떨기나무 숲에 살며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²⁾

백과사전에서는 늑대와 승냥이를 미와 같이 관찰이 가능하고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동물을 평가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거나 의인화한 표현을 하곤 한다. 짐승인 ‘돼지’는 생물학적인 풀이 이외에 국어사전에서는 미련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 많이 먹는 사람, 몹시 똥똥한 사람으로 풀이한다. 이는 주로 동물을 의인화하거나 동물의 행동을 사람의 행동에 비유하여 풀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인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백과사전에서는 제시하기 어려운데 국어사전에서는 비유적인 풀이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 실린 ‘늑대’와 ‘승냥이’의 뜻풀이는 각각 아래와 같다.

사전	늑대	승냥이
표준국어대사전	① 갯과의 포유류. ~. ② 여자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은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도들개(갯과의 포유류).
조선말대사전	사나운 짐승의 한 가지. ~.	① 개과에 속하는 사나운 짐승의 한 가지. ~. ② 포악하고 교활한 제국주의 침략자나 흉악하고 악독한 자를 비겨 이르는 말.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첫 번째 뜻풀이에서는 남과 북이 모두 생물학적인 풀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은 ‘늑대’와 ‘승냥이’를 의인적으로 비교하여 인식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 남쪽은 ‘늑대’에 인격을 부여하고 북쪽은 ‘승냥이’에 인격을 부여하여 각각 ‘음흉한 사람’과 ‘포악하고 교활한 사람’을 비유하는 풀이를 더하고 있다.

이것은 ‘늑대’의 경우 남쪽의 언중이 ‘사나움’, ‘음흉함’의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북쪽의 언중은 사나운 속성을 지녔으나 음흉한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는 인식하지 않는 것을 풀이에 반영한 것이다. ‘승냥이’의 경우에도 북쪽의 언중은 ‘승냥이’를 ‘사나움’, ‘흉악하고 악독함’의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남쪽의 언중은 사나운 속성을 지녔으나 흉악하고 악독한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는 인식하지 않는 것을 풀이에 반영한 것이다.

《조선대백과사전》에 실린 ‘승냥이’의 풀이 일부와 문헌에 나타난 예문은 아래와 같다.

사전	승냥이
조선대백과사전	개과의 한 종. 로씨야의 원동 지방으로부터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퍼져 있으며 ~ 승냥이는 음흉하고 교활하며 잔인한 것에 대한 대명사로 되고 있다.

<북 예문>

“늑다리 승냥이 같으니라구, 내가 백만장자로 되는 게 배 아픈 모양이지, 협잡으로 장군 모자를 뒤집어 쓴 주제에!” 하며 프레스톤은 악의에 차서 그에게 쏘아대었다. <저자:박태민> <출전:성벽에 비낀 불길>
돈 한푼 쥐면 손에서 땀이 난다는 일본 땅, 돈을 위해서는 승냥이가 되어야 한다는 그 저주로운 땅에서는 누구도 그를 동정해 주지 않았다. <저자:박상민> <출전:삶의 뿌리>

<남 예문>

일본은 인두검을 쓴 탐욕스러운 승냥이로구먼. <저자:이수광> <출전: 나는 조선의 국모다>

지금까지 남북의 국어사전에서 늑대와 승냥이라는 일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남북 언중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 앞으로 남북의 말을 아우르는 사전을 편찬할 때 미와 같은 인식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하여 교류 시대나 통일 시대에 남과 북의 언중이 언어생활에서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서로 오해 없이 소통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한편 《겨레말큰사전》에서는 남과 북의 사전 이용자가 동물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풀이를 사전에 반영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있다. 세부 원칙과 내용은 그동안 남쪽과 북쪽의 사전 편찬자들이 몇 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며, 그 최종 협의 결과를 동물 풀이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늑대’와 ‘승냥이’의 뜻풀이를 보이면 대략 아래와 같다.³⁾

‘늑대’의 《겨레말큰사전》 기본 뜻풀이

- ① 개와 비슷하나 머리가 좁고 길며 성질이 사나운 짐승.
- ② 주로 여자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은 남자.

‘승냥이’의 《겨레말큰사전》 기본 뜻풀이

- ① 늑대보다 작고 꼬리가 길며 산이나 떨기나무 숲에서 사는 성질이 사나운 짐승.
- ② 아주 포악하거나 교활한 사람.

1) 《두산백과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등의 ‘갯과’, ‘늑대’ 참조
2) 《두산백과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의 ‘승냥이’ 참조
3) 아래 풀이는 글쓴이의 견해이다. 《겨레말큰사전》의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 겨레말 소식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 기간을 2022년 4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하 사업회법)'이 지난 12월 24일 개정되었다.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남북은 그동안 제25차 공동 편찬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어휘 등 30여 만 개의 올림말을 선정하여 집필을 진행해 왔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북 및 해외동포가 사용하는 우리말을 종합하여, 민족어 유산을 보존하고 분단 이후 심화된 미질화 해소와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국회는 앞서 2007년 4월 '사업회법'을 제정하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겨레말 소식 |

제76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편찬사업회는 지난 12월 21일 제76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홍종선 편찬위원장, 김재용 편찬위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2018년 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2019년 사업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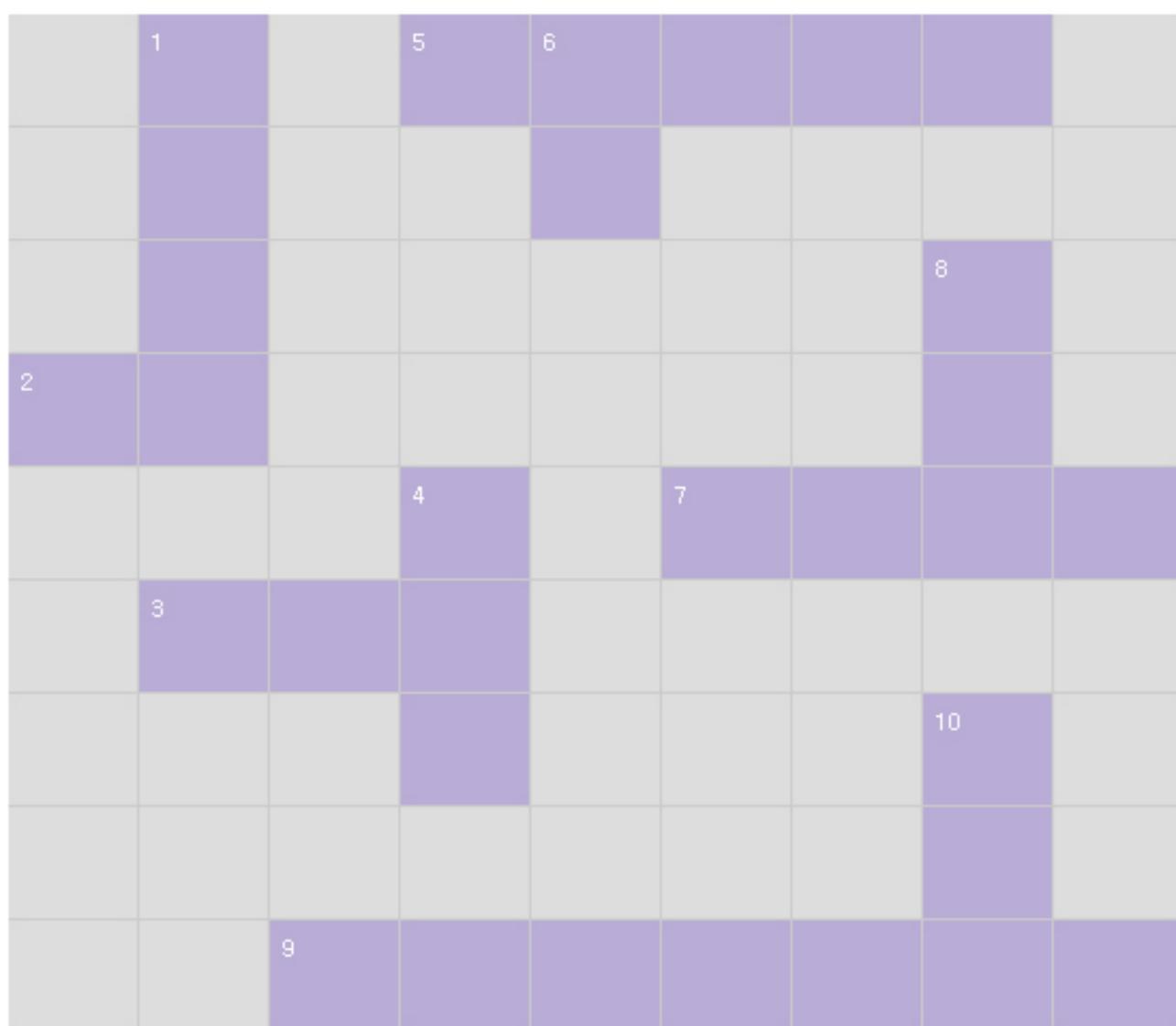
| 겨레말 소식 |

제42차 정기 이사회 회의 개최

지난 12월 21일 제42차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염무웅 이사장, 권재일 이사, 전영선 이사 등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9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과 각종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겨레말 낱말 풀이 |



- ① ‘숨바꼭질’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아이들의 놀이.”를 뜻하며 한 아이가 숨래가 되고 다른 아이들은 숨는다. 동의어 숨래잡기, 숨래잡이, 숨을내기, 숨박○○.
예) 골목이 좁다하게 뽀박질을 하며 진치기도 하고 ○○○○도 하고 파아란 대동강물에 텨뵤 뛰여들어 미역을 감고 물고기를 건져내고... 《발걸음》
- ② ‘각질(角質)’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털, 손발톱, 뿔, 알껍데기, 비늘같은것을 이루고있는 뽀뽀한 물질.”을 뜻한다. ○질.
예) 털이나 손발톱은 상피조직이 ○○화되여 생긴 것이다. 《생물, 중학교 4학년》
- ③ ‘수제비’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가루를 반죽하여 끓는 물에 조금씩 뜰어넣어서 익힌 음식.”을 뜻한다. 동의어 수제비국, 뜸더○.
예) 낱알을 구해 오는 문제가 화제에 오른 다음 날 아침 윤철녀는 전에 없이 밀가루로 ○○○을 끓이었고 잣 잎을 우려서 차물 대신 내놓았다. 《백두산 기슭》
- ④ ‘랭면(냉면)’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찬국물에 말아놓은 국수.”를 뜻한다. ○국수.
예) ○○○를 다 먹고 밖에 나와 덜덜 떨 때 련화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지. 《50년 여름》
- ⑤ ‘맛소금’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소금결정에 맛내기를 입힌것.”을 뜻한다. 가루양념감으로 쓰인다. 맛내기○○.
예) 찌개에 ○○○○○을 치다.
- ⑥ ‘넋물’의 북측 표기. “내의 물.”을 뜻한다. 내○.
예) ○○이 졸졸 흘러내려 마을 앞 늪가로 흘러들었다. 《어머니의 마음》
- ⑦ 북에서 ‘마찰음(摩擦音)’을 다듬은 말로, “날숨이 좁은 발음통로를 지날 때에 발음기관들사이에서 스침을 입어서 나는 소음적자음.”을 뜻한다. 우리말에서의 《ㅅ》, 《ㅆ》가 미에 속한다. 스침○○○.
예) 뒤따르는 모음에 영향을 제일 강하게 미치는 자음은 거센소리와 ○○○○이다. 《조선어모음실현의 청각적특성》
- ⑧ “다 자란 수소.”를 뜻하는 북녘말. 동의어 동글황소, 동글○.
예) 주인님네 암소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집 ○○○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송아지를 떼운 부자》
- ⑨ ‘페널티 킥’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 축구경기에서, 11m벌구역안에서 방머하는 켄에서 반칙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벌차기의 하나.”를 뜻한다. 동의어 벌칙차기, 포레이볼, 십일미터○○○.
예) ○○○○○○○를 얻으려고 엄살을 부리다.
- ⑩ ‘녹차(綠茶)’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풀색이 나도록 말린 차나무의 잎 또는 그것을 넣어 달인 차물.”을 뜻한다. ○○차.
예) ○○○와 홍차.

정답확인 >